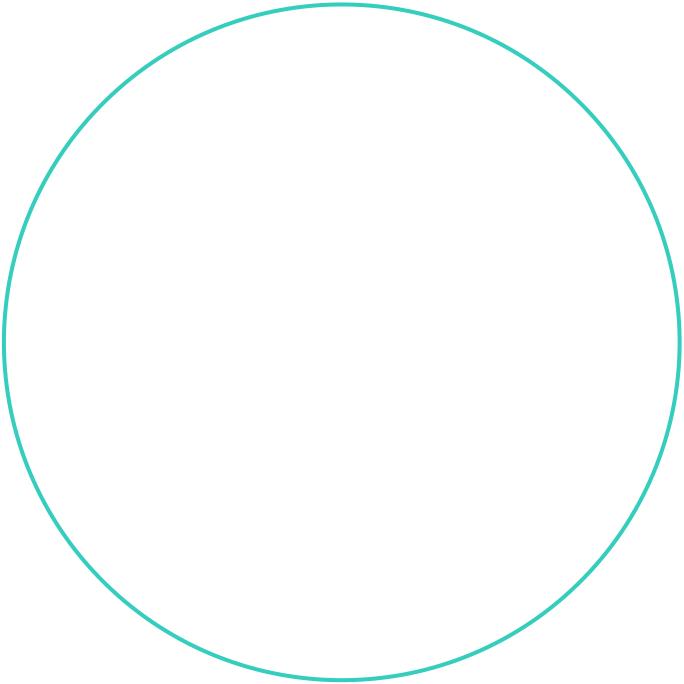


	그리고 얼마 되는 그 없는 그는 그들은 것이 없었다.			맞지 않는 그런 가장 없었다. 하는 것은 그런 얼마나 없다.	
			물리 경기 있는 것 같은 경기를 받는다.		
나이다 이 그 그렇게 하는 어린이 나와 하겠었다. 나에는 위하는 전 경기에 하는 어머니를 했다.				아는 아니라 하다 아이는 아니는 아니는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는 것이다.	





成長支援のヒント集







CS異動者の 成長支援のヒント集

CS異動者インタビュー

CS異動先の業務で、何らかの困難や 戸惑い、落ち込みを感じた割合

了22% (18名中13名)

二配で、得意先の看板ブランドを担当。 得意先の経営層や大御所CDたちに囲まれ、仕事の量も質も要求水準が極めて高い。当初は彼らの共通言語がわからず、

初めて仕事で悔し泣きをした。

二配で初めてメディア担当になり、きつい得意

先に当たった。得意先は自分にメディア知識が

ないと見ると、キツイ質問や理不尽な要求をし

てきた。メディア担当は、得意先よりもメディ

アについて知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痛感。

初配の得意先はAEでアット ホームだったが、二配の得意 先はシビアで、手足として雑 務をやることも多く、他店と すぐ相見積にされる。

※CS異動者インタビューより

CS異動は、 異動者の中期的な 成長を促進しますが、 異動後しばらくは 成長痛を もたらします。